

초중등학교 시절 경험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대학생의 긍정적 도덕정서에 미치는 영향

강인구(姜仁求)*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 시절 교사의 도덕적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보았거나 실제로 수혜자로서 경험하였을 때 시간이 지난 후 대학생이 되었을 때 어떠한 긍정적인 도덕정서를 유발하고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는 긍정심리학이 부각되면서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긍정적 도덕정서와 행복정서의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도덕정서간의 차이점도 규명하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표적인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 감사, 감탄과 행복정서인 기쁨에 대하여 감정반응유형, 신체적 감각, 동기화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인성 및 도덕교육내용과 방법에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긍정적 도덕정서는 행복정서와 구별되는 정서로 입증되었으며, 긍정적 정서 간에도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인성 및 도덕교육에서 긍정적인 도덕정서를 반영한 교육이 필요하며,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긍정적 도덕정서에서 나타나는 주요 감정반응, 신체적 감각을 인성 및 도덕교육의 학습성과를 확인하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긍정적 도덕정서 간에도 상호연계적인 동시에 구별되는 교육내용을 개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주요어 : 긍정적 도덕 정서, 고양, 감사, 감탄, 도덕적 행동

I. 서론

우리는 학창시절 존경하는 선생님께서로부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래서 단순히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업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도덕적 행동과 같은 인격적인 면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학생이 성인이 되고나서도 학창시절 감명을 받았던 선생님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으로서 대학생활을 하고 대학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고 나서도 훌륭한 선생님의 삶에 대한 태도는 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경험한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은 교육과정에 있는 위인이나 영웅, 혹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위대한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학생의 도덕정서와 행동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과연 아동 혹은 청소년기 학생들이 초중등학교 생활을 거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교사들의 도덕적 행동이 학교생활 당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할 수 있다. 둘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대학생활을 하고 사회에 진출하면서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삶에서 지속적으로 도덕정서 및 행동에 동기화가 되는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다. 셋째,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학업성취와 같은 지적인 측면과 함께 정의적인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긍정적인 도덕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최근 Lee와 Tyler(2013)는 도덕교육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1971년부터 2011년까지 40년 동안 *Journal of Moral Education*에 게재된 도덕교육에 관한 영역별 연구의 빈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덕추론 혹은 도덕 판단과 같은 인지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전체 945편중에서 456편(48.3%)으로 절반에 가까우며, 정의적 측면의 연구는 199편(21.6%)이었으며,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는 정서,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59편,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다른 관계성 연구를 포함하여 39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Haidt(2013)는 Kohlberg의 인지적 도덕성 발달이론을 20세기의 심리학의 두 주류인 행동주의와 정신분석을 극복한 인지적 혁명(cognitive revolution)의 일부로 보았다. 그리고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21세기에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정의적 혁명(affective revolution), 1990년대 시작된 신경세포의 자동적 흥분을 강조하는 자동성 혁명(automaticity revolution)을 통하여 도덕심리학 연구의 주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향후 도덕심리학과 도덕교육에서 도덕정서와 같은 정의적인 영역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40년간 도덕교육에 대한 분석에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와 도덕정서를 분리하여 빈도수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매개하는 보완적 연구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학교교육목표는 학교생활에서 학업성취도 중요하지만 정의적 발달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난 후 전인적 인격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교육목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적 측면에서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대안을 찾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

그동안 정서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긍정심리학분야가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부정적인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긍정적 정서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긍정심리학자이면서 긍정적인 도덕정서 연구에 촉매 역할을 한 Haidt(2003a)는 낯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목격했을 때 우리가 왜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Haidt도 1990년대까지 다른 도덕정서 연구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역겨움(disgust)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영역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여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Thomson & Siegel, 2013).

긍정심리학은 그동안 핵심주제로서 행복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정서가 모든 정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긍정적인 정서로서 행복이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화되지 못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긍정적인 정서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복과 구별되는 정서로 타인의 도덕적 행동을 목격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고양(강인구, 2012, 2014; Algoe & Haidt, 2009; Aquino, Diessner et al., 2014; McFerran, & Laven, 2011; Lewis & Meyer, 2011; Thomson & Siegel, 2013; Thomson et al., 2014), 감탄(Algoe & Haidt, 2009; Aquino, McFerran, & Laven, 2011; Shindler et al., 2013, 2014; Sweetman et al., 2013), 그리고 타인의 도덕적 행동을 자신이 경험한 경우 나타나는 감사(추병완, 2015; Allen et al., 2012; Fox et al., 2015; Kini et al., 2016; O'Leary & Dockray, 2015)와 같은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행복은 주로 자신의 과업을 성취했을 때 생기는 긍정적인 정서이지만, 고양, 감사, 감탄은 타인의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도덕적 행동을 목격했거나 은혜를 입었을 때 나타나 되는 정서적 반응이다.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 도덕적으로 동기화하고 행동을 따라하려는 경향성을 지니게 하는 정서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긍정적인 정서는 행복과 구별되는 도덕정서라고 할 수 있다(Algoe & Haidt, 2009; Haidt, 2003b). 긍정적인 도덕정서는 학생들의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촉매제가 된다. 본 연구는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최근의 선행연구가 지닌 교육적 시

사점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최근 연구에서 긍정적인 정서에서 행복과 구별되는 도덕정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실증적인 교육적 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선행연구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생활에서 목격을 하였거나 유명인사의 도덕적 행동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는 방법으로 긍정적인 도덕정서를 연구하였기 때문에 간접적인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적 시사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긍정적인 도덕정서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목격대상 행동을 교사의 도덕적 행동으로 하였다. 타인의 행동 대상을 교사로 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학교생활동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아동기와 사춘기동안 부모와 함께 실제적으로 가장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접하는 교육적 도덕적 모델로서 성장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다. 아울러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거의 모든 연구가 기본적으로 학창시절 동안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위인 혹은 영웅,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덕 정서적 반응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의적인 측면에서 교육적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도덕적 행동의 목격대상이 되거나 학생들이 교사의 도덕 행동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사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학생의 행동의 관계는 주로 교육철학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교영(2014)은 군중들에게 왕과 대통령이 인격의 이상적 모델로서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교사도 학생들에게 인격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인재(2011)도 독일의 현대 윤리학자인 Scheler의 인격모범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여 도덕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을 모범자, 도덕적 치료자, 도덕적 숙고자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무리 뛰어난 도덕적 지식과 교육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교사가 인격적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도덕교육적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혜성(2008)과 진현경(2013)도 교사의 역할 수행에서 학생과의 인격적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학생에게 도덕정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긍정적인 정서로서 행복과 구별되는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인 동시에 인성 및 도덕교육적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세 가지 연구문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기와 청소년시절 직간접적으로 목격하였거나 수혜자로서 경험한 교사의 인격 혹은 도덕적 행동이 성인이 된 대학생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도덕정서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하였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도덕 정서를 중심으로 초·중·고등학교 생활동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교사의 바람직한 행동 혹은 태도들이 현재 성인이 된 자신에게

긍정적인 도덕 정서들 중 어느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동기화 되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Cox(2010)의 연구에서 3개월 전 봉사활동을 통해 경험한 도덕정서로 고양 경험이 다시 회상하였을 때 각성되어 도덕적 고양에 활성화되고 봉사활동과 같은 도덕적 행동을 다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도 과거 경험했던 도덕정서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다시금 각성될 수 있다고 보고, 초중등학교시절 경험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을 회상하여 현재의 도덕정서 반응을 보려고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는 긍정적인 도덕정서로는 행복이라는 포괄적인 긍정적 정서와 구별되는 도덕정서로 고양, 감사, 감탄에 대해 알아보았다. 긍정적 도덕정서 중에서 고양, 감탄, 감사를 택한 이유는 선행연구에서 이 세 가지 도덕정서가 긍정적 도덕정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고, 친사회적 행동 유발 정서로서 최근 쟁점이 되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행복은 '기쁨(joy)'이라는 정서적 영역을 택하여 다른 세 가지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 감사, 감탄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았다. 고양, 감사, 감탄을 차별적인 도덕정서로 구분하여 분석한 이유는 최근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가 도덕정서들 간의 정서적, 행동적 반응의 차이를 규명하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는 초중등학교 시절 경험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긍정적 도덕정서영역별로 현재 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감정적 반응, 신체적 정서반응,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행동에 대한 동기화 수준을 분석하였다. 여러 선행연구(Algoe & Haidt, 2009; Diessner et al., 2013; Fredrickson, 1998; Haidt, 2003b)에서 정서와 신체적 반응은 밀접한 동반적 관계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감명 깊은 행동이라면 상당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정서적인 감흥이 있을 것이고, 당시 경험한 도덕정서가 다시금 각성된다면 신체적 반응(예를 들면 “가슴이 따듯해짐”)이 다시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정서적 경험이 동기를 유발하여 행동을 하게하는 인지적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Schwarz & Clore, 2007; Baumeister et al., 2007)에서 도덕정서와 신체적 감각, 동기유발은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 긍정적 도덕정서와 도덕적 행동

1. 긍정적 도덕정서: 고양, 감사, 감탄을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모두 개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 중에서 어느 정서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부정적인 정서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가 우리의 삶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로 더 안정적이고 행복감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Fredrickson, 1998).

긍정 심리학에서 정서에 대한 관점은 부정적 정서보다 긍정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부정적인 정서는 자기의식 정서로 자기반성적이고 자기평가적인 정서로 혐오(disgust), 수치심(shame), 분노(anger)와 같은 정서이다(Tangney et al., 2007). 반면에 긍정적인 정서로는 기쁨(joy), 흥미(interest), 만족(contentment), 사랑(love) 등이 있으며(Fredrikson, 1998), 이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는 '행복감(happiness)'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Lazarus, 1991). Gray와 Wegner(2011)는 긍정적 도덕정서와 부정적 도덕정서를 유발하는 목격대상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과 영감은 주로 영웅에 의해 생기고, 은인에 의해서 생기는 긍정적 정서는 구원(relief)과 행복, 악인에 의해 생성되는 정서는 분노와 혐오감 같은 부정적인 도덕정서이며, 희생자에 의해 생기는 정서는 동정심과 슬픔으로 분류하였다.

부정적인 도덕정서와 긍정적인 도덕정서 중에서 어느 영역이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데 더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부정적인 도덕정서가 종종 공격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기도 한다. Stuewig 외(2010)는 4개 표집집단을 대상으로 도덕정서인 수치심과 죄의식과 공격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죄의식은 방어적인 정서로 3개 표집에서 공격성과 역 상관을 보였지만 수치심은 부정적인 공격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인 정서가 부정적인 정서보다 더 바람직한 행동을 유발하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도덕정서는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도덕정서도 유사한 영역으로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정서 중에서 도덕정서는 타인의 도덕적 행동을 보았을 때 가지는 정서적 반응이고 행복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지니게 되는 기쁨과 같은 만족감에 의해 생기게 되는 정서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정서 중에서 고양, 감사, 감탄은 긍정적인 도덕정서이지만 행복은 긍정적인 도덕정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Algoe와 Haidt(2009)는 긍정적인 도덕정서와 행복을 구별하여 정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긍정적인 도덕정서로서 고양, 감사, 감탄과 같은 도덕정서와 행복의 주요 특징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표 1 참조>.

<표 1> 고양, 감사, 감탄, 행복(기쁨)의 주요 특징

	고양	감사	감탄	행복(기쁨)
유인가 (elicitor)	미덕의 기준을 초과하는 타인들	관찰자를 위해 좋은 행실을 보인 타인들	재능 혹은 기 능 기준을 초 과하는 타인들	하나의 목표를 행하거나 성취 성과
감정 표시 (feeling label)	아무것도 없음	감사	감탄	행복
신체적 감각 (physical sensation)	가슴이 따뜻함	예측할 수 없 음	활력이 있음	활력이 있음
동기 (motivations)	좋은 행동함, 더 좋은 사람 이 되려고 함	은인에게 보답, 은인을 공개적 으로 칭찬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함, 타인 칭찬	축하, 열정 소비, 좋은 감정을 타 인에게 말함
관계 결과 (relationship consequences)	일반적으로 타 인들에게 개방 적인	은혜를 베푸 사람과 긴밀한 관계 원함	가까워지거나 환심을 사려함	아무 것도 없음

고양(elevation)은 타인의 도덕적 행동을 목격하였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가슴이 따뜻해지고, 목이 메는 것과 같은 신체적 정서적 반응을 동반한다. 그리고 생리적으로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되며, 사회적 결속을 촉진한다. 고양에서 개인차를 보이는 사람은 가치 있는 자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 감정이입, 사랑에서도 차이를 보인다(Diessner et al., 2013). 또한 고양은 감사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선행을 베푸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거나 온정을 느끼게 된다. 고양은 도덕적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동기화하고 목격한 경험을 따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루한 과제를 수행하는 실험에서 고양조건의 참가자들이 통제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더 오랫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nall et al., 2010). Cox(2010)의 연구에서도 실험결과 대학생들이 장기간의 자원 봉사를 유지시키는 긍정적 도덕정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eedman 외(2009)의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도덕정서인 고양으로 인해 기부행위를 할 때 사회적 지배지향성(SDO: Social Dominance Orientation)의 부정적인 효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인구(2014)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도덕적 사례를 많이 경험할수록 도덕적 고양에 증진되며, 혐오감에 의해 도덕적 각성을 유발하는 비도덕적 사례보다 도덕적 사례가 도덕적이고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gratitude)는 다른 사람의 친절함으로부터 생기는 것으로 직간접적으로 도움 혹은 격려를 받았을 때 생기는 긍정적인 정서이다. 그리고 고양, 감탄과 같은 긍정적 도덕정서에 비해 관계형성에 대한 동기가 가장 강력하다(Algoe & Haidt, 2009). 감사는 긍정적인 도덕정서로 공감대, 감정이입,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도덕정서이다. 그리고 사람을 도울 때 생기는 사회적 상

호 호혜성으로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에 도움을 준다(Fox et al., 2015; Kini et al., 2016). 감사는 고양이 마찬가지로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하지만, 직간접적인 도움과 같은 사회적 교환적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McCullough et al., 2001), 타인의 모범적 행동을 목격하는 것만으로 생성되는 고양과는 유인가에서 차이가 나는 도덕정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감사에 대한 연구는 뇌의 반응부위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Kini 외(2016)는 감사 편지작성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3개월 후에 행동적 변화와 두뇌 활동의 변화를 탐색해본 결과, 감사에 대한 행동이 증가하였으며, fMRI를 촬영한 결과 내측 전두엽피질에 감사에 의한 뇌 변조가 의미 있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 개입이 유념(mindfulness)개입(Allen et al., 2012; O'Leary & Dockray, 2015)과 선행 실천(Kerr et al, 2015)에서도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로는 추병완(2015)이 긍정적인 도덕정서로서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이 건강, 도덕적 및 친사회적 행동, 사회적 관계를 향상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감탄(admiration)은 재능 혹은 기능이 뛰어난 타인을 목격하였을 때 생겨나는 정서이지만, 감탄도 고양이 감사처럼 긍정적 도덕정서이다. Haidt(2003a), Ortony 외(1988)와 최근 감탄의 도덕적 의미를 철학적으로 규명한 Zagzebski(2015)는 감탄이란 긍정적 도덕정서로 존중, 존경, 경외심과 같은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Immordino-Yang과 Sylvan(2010)도 신경생리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직감(gut feeling)과 같은 무의적인 정서적 반응을 동반하는 과정도 도덕적 행동의 내재적 동기가 될 수 있으며, 감탄이 그러한 내재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감탄은 이러한 맥락에서 고양이 유사한 개념이지만, 고양이 감사가 도덕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면 감탄은 무 도덕적(non moral)이라도(비도덕적이 포함된다)는 의미는 아님), 업적이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게 반응하는 정서라는 점에서(Algoe & Haidt, 2009), 고양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양이가 편향되지 않고 보편적 도덕적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감사와 감탄에 비해 가장 전형적인 긍정적 도덕정서라고 할 수 있다(Haidt, 2003b). 본 연구는 고양이 구별되는 긍정적 도덕정서로 탐색하기 위해 무도덕적인 개념을 포함하였지만 교사의 행동에 대한 정서반응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 도덕정서로서 범주화하여 신체적 감각과 동기화 내용을 탐색하였다.

2. 긍정적 도덕정서와 도덕적 행동

도덕정서는 도덕적 표준과 도덕적 행동을 연결시켜주는 인간의 중요한 도덕장치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표준은 도덕적 규준에 대한 개인의 지식이며 내면화된 것이다. 사람들의 도덕적 표준은 범주주적인 도덕률과 특별한 문화적 준거로 구성된다. 도덕정서는 사람들의 행동적인 집

착 혹은 집착이 부족한 것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Tangney et al., 2007).

최근 고양에 대한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와 관련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Thomson과 Siegel(2013)은 도덕성의 조정자로서 도덕적 행동, 고양,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도덕적인 행동에 노출된 사람들은 고양과 같은 도덕정서가 활성화되어 친사회적 행동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인 Thomson 외(2014)의 연구에서는 최근까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고양과 멘토링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고양 이 멘토와 멘토링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활성화해주는 잠재적인 기제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Van De Vyver와 Abrams(2015)는 타인의 선행을 목격했을 때 생기는 고양과 타인의 비도덕적 행동을 목격하였을 때 생기는 격분이 어떠한 유형의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고양과 분노 모두 타인을 도우려는 행동이 증가하지만, 고양만이 생길 때는 자비로운 행동이 증가하고, 격분만할 때는 친사회적 정치적 행동과 같은 정의로운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kamura 외(2009)의 연구에서 멘토링이 친사회적 행동과 고양을 유발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Vianello 외(2010)는 고양과 리더십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도자가 윤리적일수록 조직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조직구성원들에게서 고양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였다. Schnall 외(2010)도 선행을 하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목격하였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행동을 하려는 이타주의적인 희망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Landies 외(2009)는 긍정적인 도덕정서인 고양을 경험한 빈도와 도덕적 이타주의적 행동의 가능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양을 많이 경험할수록 이타주의적 행동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에 대한 연구도 고양과 유사하게 친사회적인 관계 도덕적 행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Algoe 외(2010)는 2주에 걸쳐 파트너와 관계에 대한 일일 리포트 작성을 통하여 감사와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감사가 사람사이에 더 낭만적인 관계를 활성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와 신세는 은혜에 대해 다르게 유인가를 지니는 정서적인 반응이다. 연구자들은 이 두 정서적인 반응에 대한 남녀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신세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나타났으나, 상호작용에 의한 감사에서는 남녀 모두 하루가 다르게 관계 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arlett와 DeSteno(2006), Barlett 외(2012)의 연구에서도 감사가 친사회적 행동 혹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탄에 대한 연구도 타인의 미덕을 보면서 감탄하여 인간관계와 바람직한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Immordino-Yang & Sylvan, 2010). Sweetman 외(2013)는 감탄이 사회적 위계를 조절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첫 증거를 제시하였다. 합법적인 지위관계를 조작하는 경우, 지배하는 대상에 감탄에 영향을 주어 정서적으로 사회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인 행동 경향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감탄의 대상이 체제 전복적인 순교자일 때, 현 체제에 도전하

려는 목적으로 정치적인 행동의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탄을 느끼는 사람들은 외집단(outgroup)에 대해 감탄은 증가하고 외집단에 반대하는 정치적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려는 경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소재 C 대학교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내용에 대해 부분적으로 응답한 학생을 제외한 203명(남자 40명, 여자 16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긍정적 정서영역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설문조사에 충실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탐색하려는 고양, 감사, 감탄과 같은 긍정적 도덕정서와 행복정서와 관련된 사전 지식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 전에 심리학, 교육학, 철학 같은 인문사회학적 학습경험 유무를 질문하였으며, 사전 기초지식이 있는 학생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은 학기 초에 실시되었으며, 설문작성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 측정도구

측정도구로 사용한 설문은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 감사, 감탄, 그리고 행복정서인 기쁨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4개의 지문을 제시하고 이러한 지문에 대하여 학생들이 초중등학교 시절 교사의 도덕적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였거나 직접 경험한 일을 회상하여 현재의 감정반응유형, 신체적 감각, 그리고 동기수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고양, 감사, 감탄, 기쁨에 대한 지문은 Algoe와 Haidt(2009), Vianello 외(2010)의 연구에서 사용한 지문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선행 연구의 지문에서 상황목격대상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부합하는 초중등학교에서 경험한 선생님의 사례로 바꾸어서 사용하였다. 지문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긍정적 정서영역과 지문내용

정서영역	지문내용
긍정적 도덕 정서	고양 당신이 인간성이 고귀하고 훌륭한 품성을 지닌 선생님을 언제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훌륭하고 명예롭거나 자비로운 일을 한 선생님을 목격한 상황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감사 학창시절 선생님이 당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을 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위해 선생님이 친절하였거나 도움을 주었거나 혹은 관대하게 대해 준 상황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감탄 당신이 역경을 극복한 선생님을 보았을 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성공적으로 장애 혹은 난관을 극복한 상황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행복 정서	기쁨 초중등학교 시절 학생으로서 당신에게 정말로 좋은 일이 발생했던 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희망하고 원했던 일이 발생했던 상황을 하나 선택하십시오.

고양, 감사, 감탄과 관련된 감정반응유형, 신체적 감각, 동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Algoe와 Haidt(2009)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Vianello 외(2010)는 Algoe와 Haidt(2009)의 측정도구를 타당화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을 한 결과, 정서반응은 .90, 신체적 감각은 .70, 동기수준은 .70으로 세 유형설문의 평균표준화 문항 부하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세 영역 간 상관계수는 .53, 신뢰도는 $\alpha = .82$ 로 나타났다.

설문은 긍정적 정서영역별(고양, 감사, 감탄, 기쁨)로 감정반응유형, 신체적 감각, 동기수준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은 긍정적 정서영역별로 제시된 각각의 상황 지문을 읽고 나서 세 가지 유형의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감정반응유형은 ‘감사함’, ‘경이로움(놀랍고 신비로움)’, ‘감동스러움’, ‘행복함’, ‘즐거움’, ‘존경스러움’, ‘자랑스러움’, ‘좋은 영감을 줌’, ‘고무뎀(힘을 받아 용기가 생김)’, ‘사랑스러움’, ‘흥겨움’으로 11개의 선택지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반응 중에서 그 당시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어를 하나 선택하는 것이다. 신체적 감각은 ‘활기참’, ‘심장박동 증가’, ‘얼굴이 달아오름’, ‘가슴이 따뜻해짐’, ‘목이 멍’, ‘근육 이완’, ‘근육 긴장’, ‘소름이 돋음’, ‘웃음’, ‘가슴이 벅차오름’으로 10개의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당시의 신체적 감각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여 다중반응을 측정하였다.

동기화 내용은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는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나는 그 사람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라는 확신을 느낀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로 10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된 상황지문을 읽고 나서 현재 혹은 미래에 대한 동기수준을 9단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가장 낮은 점수는 1점, 가장 높은 점수는 9점으로 하였다. 9단계 평정점수는 Algoe와 Haidt(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 동기수준의 평정점수를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긍정적 정서영역별로 감정반응유형, 신체적 감각, 동기수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긍정적 정서 영역별, 영역간 감정반응유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χ^2 검증을 하였다. 신체적 감각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반응분석(multiple response method)과 χ^2 검증을 하였다. 긍정적 정서간 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z 검정을 하였다. 긍정적 정서로 인해 발생할 신체적인 감각을 살펴보기 위해 신체적 감각을 이분변수로 보고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하였으며,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 감사, 감탄과 행복 정서인 기쁨의 신체적 감각이 발생할 가능성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네 가지 긍정적 정서를 범주형 독립변인으로 하고, 기쁨을 참조변인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동기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하였으며, 긍정적 정서영역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urkey 사후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자료는 SPSS 1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긍정적 정서영역에 따른 감정반응유형의 차이

긍정적 정서영역인 고양, 감사, 감탄, 그리고 기쁨에 따른 감정반응 유형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유형도 있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유형도 있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양' 지문에서는 '존경스러움'이 가장 빈도수가 많았으며, '감사' 지문에서는 같은 감정반응인 '감사함'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았다.

<표 3> 긍정적 정서영역에 따른 감정반응유형의 차이 (N=203)

단위: 명

감정반응유형	긍정적 도덕정서			행복정서
	고양	감사	감탄	기쁨
감사함	39 ^a	104^b	4 ^c	59 ^d
경이로움	10 ^a	3 ^b	59^c	22 ^d
감동스러움	17 ^a	21 ^a	23 ^a	14 ^a
행복함	4 ^a	8 ^a	3 ^a	67^b
기쁨	3 ^{ab}	8 ^{bc}	0 ^a	12 ^c
존경스러움	89^a	13 ^b	53^c	0 ^d
자랑스러움	15 ^a	1 ^b	7 ^a	16 ^a
좋은 영감을 줌	9 ^a	7 ^a	21 ^b	1 ^c
용기가 생김	15 ^a	37 ^b	33 ^b	9 ^a
사랑스러움	2 ^a	0 ^a	0 ^a	0 ^a
흥겨움	0 ^a	1 ^a	0 ^a	3 ^a
전 체	203	203	203	203

주. 알파벳 첨자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 동일한 알파벳이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다른 알파벳임. 진한 숫자는 정서영역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감정반응 유형임. 감탄과 기쁨은 빈도가 비슷한 감정반응 유형을 하나 더 표시하였음.

‘감탄’지문에서는 기대되는 반응인 ‘경이로움’이 가장 빈도수가 많았으며, 두 번째 빈도수는 ‘고양’과 마찬가지로 ‘존경스러움’이 많았다. 행복정서인 ‘기쁨’지문에서는 기대되는 반응인 ‘행복함’이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 감사함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던 ‘감사함’이 많았다.

또한 이와 같이 각각의 긍정적 정서영역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감정반응유형은 정서영역 간 차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p < .05$ 수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은 ‘존경스러움’($n=89$), 감사는 ‘감사함’($n=104$), 감탄은 ‘경이로움’($n=59$), 기쁨은 ‘행복함’($n=67$)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감정반응유형별 정서영역 간 차이에서도 빈도수가 매우 적은 ‘사랑스러움’과 ‘흥겨움’ 그리고 ‘감동스러움’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서영역 간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거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감정반응 유형 중에서 ‘행복함’은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n=4$), 감사($n=8$), 감탄($n=3$)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행복 정서인 기쁨($n=67$)과는 세 영역 모두 유의미한 차이($p < .05$ 수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정서 영역 간에 감정반응유형에서 두드러진 하나 혹은 두 가지 유형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감정반응유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긍정적 정서영역에 따른 신체적인 감각의 차이

긍정적 정서영역에 따른 신체적 감각의 차이는 10가지 정서적 신체반응으로 분석하였다<표 4 참조>. ‘고양’지문은 ‘가슴 따뜻해짐’(n=123)이 빈도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웃음’(n=77), ‘가슴이 벅차오름’(n=62), ‘활기 참’(n=41)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감사’지문은 ‘고양’과 마찬가지로 ‘가슴이 따뜻해짐’(n=125)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웃음’(n=73), ‘가슴이 벅차오름’(n=69), ‘활기 참’(n=54)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감탄’지문에서도 ‘고양’, ‘감사’와 마찬가지로 ‘가슴이 따뜻해짐’(n=97)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고양’, ‘감사’와 달리 네 번째로 ‘소름이 돋음’(n=34)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행복정서인 ‘기쁨’지문에서는 ‘심장 박동 증가’(n=108)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가슴이 벅차오름’(n=106), ‘웃음’(n=100), ‘활기 참’(n=96) 순으로 빈도수가 많게 나타났다.

<표 4> 긍정적 정서영역에 따른 신체적인 감각의 차이 (N=203)

단위: 명

신체적 감각	긍정적 도덕정서			행복정서
	고양	감사	감탄	기쁨
활기참	41 ^a	54 ^a	33 ^a	96 ^b
심장박동 증가	19 ^a	27 ^a	24 ^a	108 ^b
얼굴이 달아오름	18 ^{ab}	27 ^b	8 ^a	57 ^c
가슴이 따뜻해짐	123 ^{ab}	125 ^b	97 ^a	39 ^c
목이 뻐	13 ^a	29 ^{ab}	29 ^{ab}	36 ^b
근육 이완	4 ^a	9 ^a	4 ^a	4 ^a
근육 긴장	12 ^a	8 ^a	5 ^a	7 ^a
소름이 돋음	21 ^{ab}	9 ^b	34 ^a	31 ^a
웃음	77 ^{ab}	73 ^b	45 ^c	100 ^a
가슴이 벅차오름	62 ^a	69 ^a	69 ^a	106 ^b

주. 알파벳 첨자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 동일한 알파벳이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다른 알파벳임. 진한 숫자는 정서영역별로 다중응답분석결과 가장 빈도수가 높은 상위 4개 신체적인 감각임.

신체적 정서반응 중에서 ‘가슴이 따뜻해짐’은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n=123), ‘감사’(n=125), ‘감탄’(n=97)에서만 빈도수가 행복정서인 ‘기쁨’(n=39)과 유의미한 차이($p < .05$ 수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신체적 정서반응은 행복정서가 아닌 긍정적 도덕 정서의 특징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심장박동 증가’(n=108)는 세 가지 긍정적 도덕정서와 달리 행복정서인 ‘기쁨’에서 두드러지게 많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 도덕정서와 차별적인 행복정서의 신체적 정서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활기 참’, ‘가슴이 벅차오름’에서도 ‘기

쁨'의 빈도수(n=106)와 세 가지 도덕정서가 유의미한 차이(p<.05 수준)를 보이고, '웃음'에서도 '고양'(n=77)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도덕정서와 유의미한 차이(p<.05 수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긍정적 도덕정서와 행복정서와는 신체적 정서반응에서 그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긍정적 정서영역에 따른 신체적인 감각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N=203)

신체적 감각	긍정적 도덕정서						행복정서
	고양		감사		감탄		기쁨
	Wald	Exp(B)	Wald	Exp(B)	Wald	Exp(B)	Wald
활기참	31.82	.28***	18.26	.40***	41.85	.22***	54.68***
심장박동 증가	73.91	.09***	64.18	.13***	68.16	.12***	131.21***
얼굴이 달아오름	22.62	.25***	13.01	.39***	32.85	.11***	47.70***
가슴이 따뜻해짐	66.52	6.46***	69.25	6.74***	35.27	3.85***	84.83***
목이 뻐	11.36	.32***	.89	.77***	.89	.77***	11.49***
근육 이완	.00	1.00***	1.88	2.31***	.00	1.00***	3.47***
근육 긴장	1.35	1.76***	.07	1.15***	.34	.71***	3.25***
소름이 돋음	2.18	.64***	11.93	.26***	.16	1.12***	16.42***
웃음	5.27	.63***	7.29	.58***	31.16	.29***	31.33***
가슴이 벅차오름	19.30	.40***	13.58	.47***	13.58	.47***	24.45***

주. *: p<.05, ** p<.01, *** p<.001 . 행복정서인 '기쁨' 을 참조변인으로 하여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 감사, 감탄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음. 진한 숫자는 참조변인인 기쁨에 비해 발생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임.

긍정적 정서영역에 따른 신체적 정서반응의 발생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가슴이 따뜻해짐'에서 행복정서인 '기쁨' 보다 '고양'은 6.46배, '감사'는 6.74배, '감탄'은 3.85배 유의미하게 높은 것(p<.001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슴이 따뜻해짐'은 발생가능성에서 행복정서와 구별되는 긍정적 도덕정서의 신체적 정서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가슴이 따뜻해짐'을 제외한 다른 신체적 정서반응은 긍정적 도덕정서가 행복정서인 '기쁨'에 비해 발생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목이 뻐', '근육이완', '근육긴장'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긍정적 정서영역별 동기 수준

긍정적 정서영역별 동기수준은 10가지 동기화내용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긍정적 정서영역에서 고르게 9점 척도에서 6점에서 7점사이의 높은 동기화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람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라는 확신을 느낀다'에서는 긍정적 도덕정서 중에서는 '감사'(6.04)와 행복정서인 '기쁨'(6.74) 간에 동기화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p<.05 수준)를 보였으며, '고양'과 '감사'에서도 유의미한 차이(p<.05 수준)를 보였다. '새

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에서는 '고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가지 도덕정서인 '감사'(6.74)와 '감탄'(6.70)에서 행복정서인 '기쁨'(7.26)과 유의미한 차이($p<.05$ 수준)를 보였다. 나머지 동기화 내용에서는 긍정적 정서 영역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정서영역별 동기 수준 (N=203)

동기화 내용	긍정적 도덕정서			행복정서
	고양	감사	감탄	기쁨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7.48 ^a	7.39 ^a	7.17 ^a	7.46 ^a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다	7.29 ^a	7.01 ^a	6.97 ^a	7.25 ^a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8.14 ^a	7.86 ^a	7.99 ^a	7.91 ^a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다	7.34 ^a	7.27 ^a	7.30 ^a	7.33 ^a
그 사람이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 라는 확신을 느낀다	6.52 ^b	6.04 ^a	6.34 ^{ab}	6.74 ^b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다	6.71 ^a	6.89 ^a	6.71 ^a	7.14 ^a
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해 부정 적인 말을 하고 싶다	2.07 ^a	2.01 ^a	2.00 ^a	2.05 ^a
성공하고 싶다	8.03 ^a	7.95 ^a	7.89 ^a	8.19 ^a
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 하고 싶다	7.60 ^a	7.33 ^a	7.34 ^a	7.46 ^a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7.03 ^{ab}	6.74 ^a	6.70 ^a	7.26 ^b

주. 알파벳 첨자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 동일한 알파벳이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면 다른 알파벳임. 진한 숫자는 동기수준에서 긍정적 정서영역별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임.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초중등학교시절 경험한 선생님의 도덕적 행동에 대해 어떠한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그러한 정서적 경험이 동기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최근 긍정심리학과 함께 도덕성 연구에서도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적 도덕정서는 고양, 감사, 감탄, 경외심, 존경심 등 다양한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강인구, 2012, 2014; 추병완, 2015; Algoe & Haidt, 2009; Kini et al., 2016; Leary & Dockray, 2015; Sweetman et al., 2013; Thomson & Siegel, 2013; Thomson et al., 2014; Van De Vyver & Abrams, 2015). 대부분의 연구는 일상생활 혹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위인, 영웅, 혹은 일반인의 도덕적 행동을 목격하였을 때 어떠한 긍정적 도덕정서를 경험하였고, 이러

한 정서적 경험이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다. 또한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는 긍정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긍정적 도덕정서들의 차별적 특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긍정적 정서에 대한 연구가 주로 행복에 대한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부분의 긍정적 정서를 기쁨, 즐거움과 같은 행복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행복과 구별되는 긍정적 도덕 정서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긍정적 도덕정서별로 주요 특징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정서별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탐색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는 다른 사람의 도덕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후 나타나는 정서적 경험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택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일반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성 및 도덕교육적 의미에서 실증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초중등학교시절 경험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을 목격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이 성인이 된 현재 자신의 도덕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긍정적 도덕정서들의 주요 특징들은 감정반응유형, 신체적 감각과 관련된 정서반응,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동기화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선행연구를 기초로 세 가지 쟁점을 논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학교 시절 목격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성인이 되고나서도 긍정적 도덕정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사회적 혹은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화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정서는 친사회적,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핵심기제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목격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은 교사의 도덕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덕정서는 부정적 도덕정서와 긍정적 도덕정서로 분류할 수 있다. 부정적 도덕정서는 수치심, 죄의식, 격노와 같은 도덕정서이며, 긍정적 도덕정서는 고양, 감탄, 감사, 경외심과 같은 정서이다. 긍정적 도덕정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도덕정서도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지만,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비해 종종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최근 Van De Vyver와 Abrams(2015)의 연구에서 고양은 자비로운 행동을 증가시키지만 격노는 정의로운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Stuewig 외(2010)의 실험연구에서는 죄의식은 자기방어적 도덕정서로 작용하지만, 수치심은 종종 공격성을 유발하는 도덕정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부정적인 정서보다 긍정적인 도덕정서가 바람직한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선행연구들(Algoe & Haidt, 2009; Algoe et al., 2010; Cox, 2010; Kerr et al., 2015; Kinn et al., 2015; Schnall et al., 2010; Tangney et al., 2007)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는 정서가 인지적 평가를 통해 동기를 활성화한다는 선행연구결과(Schwarz & Clore, 2007; Baumeister et al., 2007)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타인의 모범적 행동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거나 직접 수혜자로서 경험하였을 때 긍정적인 도덕정서를 지니게 되고 이러한 도덕정서가 동기화가 되어 친사회적, 도덕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학창 시절 목격한 교사의 행동이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부모만큼 많이 접하는 성인인 교사의 행동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도덕정서를 지속시키는 데 중요한 도덕적 행동 모델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긍정적인 도덕정서인 고양, 감탄, 감사는 행복정서인 기쁨과는 구별되는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긍정적인 도덕정서 세 가지도 구별되는 정서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네 가지 긍정적 정서에 대하여 감각반응유형을 분석한 결과 '고양' 지문에서는 '존경스러움', '감사' 지문에서는 기대되는 감정반응유형인 '감사함', 감탄은 '경이로움', 기쁨은 '행복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네 가지 긍정적 정서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 정서의 차별적 특징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쁨'을 제외하고(기쁨의 경우 '감사함'도 59명이 선택하여 67명이 선택한 '행복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머지 세 가지 긍정적 정서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선택을 하였다는 점에서 각각의 정서의 특징적인 감정반응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세 가지 도덕정서는 신체적 정서반응내용 중에서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신체적 정서반응에 행복정서인 '기쁨'에 비해 유의미하게 부각되는 정서반응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행복정서인 '기쁨'은 '심장박동 증가'라는 신체적 감각에서 세 가지 긍정적 도덕정서와 차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각되는 신체적 감각으로 나타났다. '활기참', '웃음', '가슴이 벅차오름'에서는 네 가지 긍정적 정서 모두 상위 네 가지 반응(감탄은 네 번째 순위로 '소름돋음'을 선택하였음)으로 나타났으나 행복정서가 긍정적 도덕정서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선택을 한 신체적 감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Algoe & Haidt, 2009; Tangney et al., 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긍정적 정서의 감정반응유형에서 차이를 보이고, 긍정적 도덕정서는 행복정서와 구별되는 신체적 감각을 보이는 정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 고양과 호르몬 분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Diessner et al., 2013), 뇌 영상 연구들에서 증명된 감사(Fox et al., 2015; Kini et al., 2016), 감탄(Immordino-Yang & Sylvan, 2010)에 대한 연구도 간접적으로 신체적 정서반응을 지지하고 있다.

셋째, 초중등학교 시절 목격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은 긍정적 정서는 성인이 되고나서도 친사회적,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로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네 가지 긍정적인 정서에서 높은 동기화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 중에서 교사의 행동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적인 활동에서 멘토링을 통하여 친사회적, 도덕적 행동이 동기화

되는 실험적 연구(Nakamura et al., 2009; Silver & Haidt, 2008; Thomson, 2013)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긍정적 도덕 정서에 대한 여러 연구(Schnall et al., 2010; Vianello et al., 2010)에서 다른 사람의 도덕적 행동을 목격하였을 때 이타주의적이고 친사회적으로 동기화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동기화 내용 중에서 '나는 그 사람이 미래에 책임질 사람이라는 확신을 한다'와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긍정적 정서간의 동기화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가지 내용 모두 감사와 다른 정서와 차이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감사'가 이 두 가지 동기화 내용에서 다른 긍정적 정서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기수준이 낮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와 '나는 성공을 하고 싶다'는 동기화 내용에서 네 가지 긍정적 정서에서 가장 동기화 수준이 높은 두 가지로 나타났으며, 고양과 감탄에서는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가 가장 높은 동기화 수준을 보였으며, 감사와 기쁨에서는 '나는 성공을 하고 싶다'는 동기화 내용에서 가장 높은 동기화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동기화 내용에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행복정서와 긍정적 도덕정서 간에 동기화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기화 내용으로 보면 고양, 감탄과 같은 긍정적 정서가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하는 도덕정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론은 학교현장에서 인성 및 도덕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긍정적 도덕정서발달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로서 교사의 모습이 아닌, 학생에게 도덕적 행동의 전형적인 모델로서 인성 및 도덕교육내용으로서 교사의 행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초중등학교 시절 목격된 교사의 도덕적 행동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 하는 긍정적 도덕정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성 및 도덕교육 수업시간에 이타주의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한 인물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거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행동을 목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교사의 행동이 오히려 교과서 속의 인물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모방 혹은 관찰학습의 대상은 교사의 도덕적 행동일 수 있다. 그동안 교사의 지적, 정서적 측면과 학생의 학업성취도나 문제해결력의 관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가졌던 교사의 인성 혹은 태도와 학생의 긍정적 도덕정서와 행동과 관련성에 대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사의 인성과 행동을 학생의 인성 및 도덕교육의 주된 내용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정반응유형과 가슴이 따뜻해짐과 같은 신체적 정서반응은 긍정적 도덕정서를 판단하는 중요한 인성 및 도덕교육의 학습성과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인

긍정적 정서에 비해 도덕정서인 고양, 감탄, 감사에서 부각된 존경심, 감사함, 경이로움과 같은 감정반응유형은 긍정적 도덕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정서인 기쁨과 달리 긍정정적 도덕정서에서 확인되는 '가슴이 따뜻해진다'는 신체적 정서 감각도 긍정적 도덕정서를 확인할 수 있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성 및 도덕교육에서 도덕정서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긍정적 도덕정서와 부정적 도덕정서의 도덕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에 대한 연구(예를 들면, Van De Vyver & Abrams, 2015)도 이루어지고 있다. 긍정적 도덕정서와 부정적 도덕정서 모두 인성 및 도덕교육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적 도덕정서가 종종 공격성과 같은 비도덕적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Stuewig et al., 2010)에서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최근 여러 선행연구 결과에서 긍정적 도덕정서가 친사회적,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인성 및 도덕교육에서 주된 교육내용으로 긍정적 도덕정서를 지속적으로 가지게 할 수 있도록 직간접으로 도덕적 행동을 목격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그 중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도덕적 행동 사례로서, 학생들의 긍정적 도덕정서를 유발하고 도덕적 행동을 동기화하도록 하는 중요한 촉매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긍정적인 도덕정서들 각각에 부합하는 교육내용과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행복정서와 긍정적 도덕정서의 차별적인 특징을 규명하려고 하였으며, 긍정적 도덕정서간의 차이도 분석하려고 하였다. 긍정적 도덕정서인 고양, 감사, 감탄은 최근 긍정적인 도덕정서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 가지 도덕정서 중에서 고양이가 가장 전형적인 도덕정서라고 할 수 있다(Haidt, 2003b). 감사는 상호 교환적인 도덕정서이고, 감탄은 도덕적이지 않더라도 재능이나 업적이 뛰어난 경우에도 가지는 정서라는 점(Algoe & Haidt, 2009)에서 감사나 감탄보다도 고양에 대한 인성 및 도덕교육내용과 교육방법 개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긍정적인 도덕정서 뿐만 아니라 행복정서인 기쁨도 감정반응유형, 신체적 감각, 동기화 내용에서 중복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긍정적 정서간의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긍정적 정서교육에서 다양한 정서영역을 고려하여 도덕정서 교육내용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뇌 영상 연구(Fox et al, 2016; Immordino-Yang & Sylvan, 2010; Kinn et al., 2016)에서 볼 수 있듯이 도덕인지와 도덕정서간에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도덕정서 교육에서 도덕인지적 측면도 고려하여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긍정적인 도덕정서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강인구(2012, 2014)와 추병완(2015)의 연구와 함께 선행 국외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도덕정서교육이

이루어져 한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정서(Tooby & Cosmides, 2008), 도덕정서(Tangney et al., 2007)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관점과 우리나라의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분석하여 교육내용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성 및 도덕교육적 방안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로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연구에서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외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초중등학교의 인성 및 도덕교육내용과 방법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도덕정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덕정서는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인류공통의 도덕적 가치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성 및 도덕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긍정적 도덕정서를 탐색하여 인성 및 도덕내용과 방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과거 초중등학교 학창시절의 목격담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어린 시절 경험한 인상적인 행동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 잔상이 남아있듯이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Cox, 2010)를 기초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교사의 인상적인 도덕적 행동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앞서 연구결과와 논의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감정반응유형, 신체적 감각, 동기화 내용에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문지의 답변이 정확히 과거의 교사의 도덕적 행동을 반영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종단적 후속연구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학년별 혹은 연령대 별로 긍정적 도덕정서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구(2012). 긍정적 도덕정서로서 고양, 감사, 감탄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교육학연구*, 50(1), 81-104.
- 강인구(2014). 청소년의 도덕적 사례분석행동과 도덕적 고양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2), 29-50.
- 금교영(2014). 인격전형과 인성교육 연구. *동서철학연구*, 72, 439-461.
- 윤혜성(2008). 교사의 역할수행에 있어서 인격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교육의 이론과 실천*, 13(2), 149-175.
- 이인재(2011). 셸러(M. Scheler)의 인격 모범과 도덕교사의 역할. *윤리교육연구*, 25, 241-256.
- 진현경(2013). 교사의 존재와 권위의 관계. *도덕교육연구*, 25(1), 189-221.
- 추병완(2015). 감사연습의 도덕교육적 의미. *초등도덕교육*, 47, 29-55.
- Allen, M., et al. (2012). Cognitive-affective neural plasticity following active-controlled mindfulness intervention. *The Journal of Neuroscience*, 32(44), 15601-15610.
- Algoe, S. B., & Haidt, J. (2009). Witnessing excellence in action: the 'other-praising' emotions of elevation, gratitude, and admiration.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2), 105-127.
- Aquino, K., et al. (2011). Moral identity and experience of moral elevation in response to act of uncommon good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4), 703-718.
- Bartlett, M. Y., & DeSteno, D. (2006). Gratitude and prosocial behavior: Helping when it costs you. *Psychological Science*, 17(4), 319-325.
- Bartlett, M. Y., et al. (2012). Gratitude: prompting behaviours that build relationships. *Cognition & Emotion*, 26(1), 2-13.
- Baumeister, R. F., et al. (2007). How emotion shapes behavior: Feedback, anticipation, and reflection, rather than direct caus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1, 167-203.
- Cox, K. S. (2010) Elevation predicts domain-specific volunteering 3 month later.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5), 333-341.
- Diessner, R., et al. (2013). Who engages with moral beauty? *Journal of Moral Education*, 42(2), 139-163.
- Fox, G. R., et al. (2015). Neural correlates of gratitude. *Frontiers in Psychology*, 6.

<http://dx.doi.org/10.3389/fpsyg.2015.01491>에서 2016. 1. 27 인출.

- Fredrickson, B. L. (1998). What good are positive emotion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 300-319.
- Freeman, D., et al. (2009). Overcoming beneficiary race as an impediment to charitable donation: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the experience of moral elevation, and donation behavi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72-84.
- Gray, K., & Wegner, D. M. (2011). Dimensions and moral emotions. *Emotion Review, 3*(3), 258-260.
- Haidt, J. (2003a). Elevation and positive morality. In C. L. M. Keyes & J. Haidt (Eds.), *Flourishing: Positive psychology and the life well-lived* (pp. 275-28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idt, J. (2003b). The moral emotions. In R. J. Davidson, K. R. Scherer, & H. H. Goldsmith (Eds.), *Handbook of sciences*(pp. 852-87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idt, J. (2013). Moral psych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Moral Education, 42*(3), 281-297.
- Immordino-Yang, M. H., & Sylvan, L. (2010). Admiration for virtue: Neuroscientific perspectives on a motivating emotio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5*(2), 110-115.
- Kerr, S. L., et al. (2015). Can gratitude and kindness interventions enhance well-being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6*(1), 17-36.
- Kini, P., et al. (2016). The effects of gratitude expression on neural activity. *Neuroimage, 128*, 1-10.
- Landis, S. K., et al. (2009). The relation between elevation and self-reported prosocial behavior: Incremental validity of elevation can induce nursing. *Emotion, 8*, 291- 295.
- Lee, A., & Taylor, M. J. (2013). Moral education trends over 40 years: A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1971-2011). *Journal of Moral Education, 42*(4), 399-429.
- McCullough, M. E., et al. (2001). Is gratitude a moral affect? *Psychological Bulletin, 127*, 249-266.
- Nakamura, J., et al. (2009). *Good mentoring: Fostering excellent practice in higher educ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O'Leary, K., & Dockray, S. (2015). The effects of two novel gratitude and mindfulness interventions on well-being.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1*(4), 243-245.

- Ortony, A., et al. (1988). *The cognitive structure of emo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nall, S., et al. (2010). Elevation leads to altruistic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21(3), 315-320.
- Shindler, I., et al. (2013). Linking admiration and adoration to self-expansion: Different ways to enhance one's potential. *Cognition and Emotion*, 29(2), 292-310.
- Schwarz, N., & Clore, G. L. (2007). Feelings and phenomenal experiences. In A. Kruglanski, & E.T. Higgins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2nd ed., pp. 385-400). New York: Guilford Press.
- Silvers, J. A., & Haidt, J. (2008). Moral elevation can induce nursing. *Emotion*, 8, 291-295.
- Stuewig, J., et al., (2010). Shaming, blaming, and maiming: Functional links among the moral emotions, externalization of blame, and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1), 91-102.
- Sweetman, J., et al. (2013). Admiration regulates social hierarchy: antecedents, dispositions, and effects on intergroup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3), 534-542.
- Tangney, J. P., et al. (2007). Moral emotions and moral behavior. *Th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8, 345-372.
- Thomson, A. L., & Siegel, J. T. (2013). A moral act, elevation, and prosocial behavior: Moderators of morality.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8(1), 50-64.
- Thomson, A. L., et al. (2014). Elevation and mentoring: An experimental assessment of causal relation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9(5), 402-413.
- Tooby, J., & Cosmides, L. (2008). The evolutionary psychology of the emotions and their relationship to internal regulatory variables. In M. Lewis, J. M. Haviland-Jones, & L. F. Barrett (Eds.), *Handbook of emotions*(pp. 114-137). New York: Guilford Press.
- Van De Vyver, J., & Abrams, D. (2015). Testing the prosocial effectiveness of the prototypical moral emotions: Elevation increases benevolent behaviors and outrage increases justice behavio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8, 23-33.
- Vianello, M., et al. (2010). Elevation at work: The organizational effects of leaders' moral excellenc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5(5), 390-411.
- Zagzebski, L. (2015). Admiration and the Admirabl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89(1), 205-221.

* 논문접수 2016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3월 11일 / 2차 심사 2016년 4월 15일 / 게재승인 2016년 6월 3일

* 강인구: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를 수여하였다. 동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kigdp@cau.ac.kr

Abstract

The Effects of Teacher's Moral Behaviors, Witnessing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Days support on Positive Moral Emotion of College Students

Kang, In-G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eacher's moral behaviors, witnessing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days support on positive moral emotion of college students. Recently, research on positive moral emotions has been studied as issues in positive psycholog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positive moral emotions and happiness. Also,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difference between positive moral emo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positive moral emotions, such as elevation, gratitude, admiration, and happiness emotion, such as joy in emotional reaction type, physical sensations, motivational effects.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ed positive moral emotions as distinct from happiness, and showed to difference between positive moral emotions. This requires curriculum about positive moral emotion in character and moral education. Also, this result suggest that the moral behavior of teachers should be reflected in the curriculum of character and moral education. In addition, emotional reactions and physical sensations of the positive moral emotions could be developed as tool to evaluate learning outcome of positive moral emotion education.

Key words: positive moral emotion. elevation, gratitude, admiration, moral behavior

* Assistant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